

열린사회 제창한 비판적 합리주의자

20세기 철학사에 위대한 자취 남기고 떠난 칼 포퍼

신중섭

강원대 교수·서양철학

포퍼는 공산주의자는 거짓 예언자이며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폭력에 귀착되며,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통해서만 절대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음을 「열린 사회와 그 적들」(1945) 1, 2권을 통해 설득력있게 논증하였다. 그는 “이땅에 천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언제나 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토피아와 같은 추상적인 꿈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치철학적 신념으로 품고 있었다. 포퍼는 “칼이 아닌 언어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문명의 기초이고, 모든 법 제도와 의회 제도의 기초”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며, 그 토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열린 사회’를 주창하고 옹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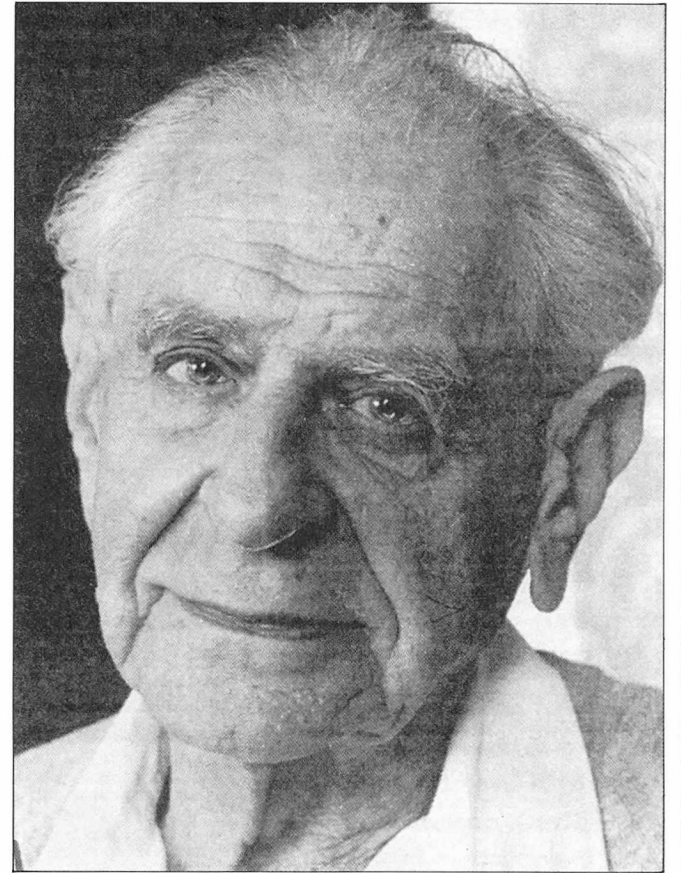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통해 영어 사용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포퍼의 이러한 사회 철학의 학문적 뿌리는 그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1934년에 출간된 「탐구의 논리」는 그의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다. 그의 사회 철학은 그의 과학 철학과 인식론의 기본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세기 철학사에 위대한 자취를 남기고 1994년 9월 14일 세상을 떠난 포퍼는 1902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음악과 책으로 가득찬 매우 교양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유대교 신앙을 포기한 유대인이었다. 1만여권의 책을 보유한 아버지는 저술가이면서 사회 개혁가였으며 철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사유

포퍼는 독창적이고 명석하고 심오한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포퍼는 자연과학 철학의 전문적인 논의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폭넓은 주목을 받은 교육, 정치, 사회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20세기의 탁월한 사상가라 할 수 있다. 철학자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유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관에 충실하여 90평생 동안 폭넓은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학문적 관심이 넓은 철학자는 심오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문제에만 천착한 철학자는 사유의 폭이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현대 철학자들의 폭과 깊이의 딜레마를 극복한 위대한 사상가다.

포퍼는 인식론과 과학 철학에서 두 가지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 ‘구획 기준의 문제’와



지난해 타계한 칼 포퍼.

‘귀납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은 1934년에 출간된 「탐구의 논리」(Logik der Forschung)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다. 「탐구의 논리」를 읽은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책은 포퍼를 유명한 철학자로 만들었다. 아인슈타인도 이 책에 관심을 가졌다. 몇몇 오류만 제거한다면 이 책은 “실제로 훌륭한 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포퍼에게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1959년이 되어서야 영문(The Logic of Scientific Knowledge)으로 출판되었다. 매기는 만일 이 책이 빨리 영어로 출판되었다면 영국 철학의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늦게 출판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 책의 부록을 제외한 본문이 독일어출판 60년 뒤인 1994년 12월에 박우석 박사에 의해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한국어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헨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온 과학 철학 관련 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헌들 가운데 하나”라는 매다위의 극찬을 받은 「과학적 발견의 논리」의 주요 내용은 반귀납

주의적 과학관과 과학과 비과학의 구획 기준으로서의 반증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과학에서 결정적인 것은 검증이 아니라 반증이다. 과학적 언명은 경험적으로 반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비과학과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는 그 이론이 거부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포퍼는 말한다.

「과학적 발견의 논리」는 ‘귀납의 문제’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한다. 포퍼의 설명에 따르면 관찰이나 실험의 결과에 대한 보고와 같은 단칭 언명으로부터 가설이나 이론과 같은 보편 언명으로 나아가는 추리가 귀납추리이다. 곧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까마귀가 검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귀납 추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귀납추리는 타당한 추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검은 까마귀를 관찰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모든 까마귀 속에는 지금까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래의 까마귀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침이면 모이를 받아먹은 닭이 내일 아침 식사의 요리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해가 동쪽에서 떴다고 하더라도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반증주의 과학관 주창

베이컨 이래로 과학은 모든 지식의 범형으로 간주되었다. 베이컨은 과학적 지식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귀납적 방법에서 찾았다. 그는 과학의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동일시하였다. 베이컨에 따르면 아무런 편견이나 전제 없이 관찰하고 이러한 관찰 사례를 모아 가설을 구성하고, 그 가설은 다시 관찰에 의해 테스트 받는다. 그러나 모든 관찰은 “이론의존적”이기 때문에 전제없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흄이 제기한 귀납의 문제로 말미암아 귀납적 방법이 안고 있는 매력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포퍼는 “관찰의 이론의존성”을 받아들이면서 반귀납주의적인 과학 방법으로 가설 연역적 방법을 제창하였다. 과학 이론과 같은 전칭

삼연편집실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어쩌다 만난 좋은 책 한 권은
어쩌다 만난 좋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일생을 영롱한 꽃밭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벽차고 힘든 세상이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간혹 터질 듯한 기쁨으로
온몸이 떨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들었던 많은 책들을 떠나 보내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원고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는 것은
이 또한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처녀의 뜨거운 열정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책이라면 더욱더
그려할 것입니다.



●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운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Rewriting.
교정 : 辭(事)典類 · 漢書 · 문학 및 학술 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 기계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용 PC 7대
레이저 프린트기(300dpi, 600dpi 등)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Express-31p) 1대

언명은 관찰 언명인 단청언명에 의해 검증될 수는 없어도 반증될 수는 있다는 것이 포퍼의 반증주의 과학관의 핵심이다. 곧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명제는 검은 까마귀에 의해 참으로 검증될 수는 없어도 한 마리의 검지않은 까마귀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질 수는 있다. 과학 언명은 경험에 의해 검증된 언명이 아니라 아직 반증되지 않은 언명이다. 따라서 거짓으로 반증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우리는 이 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이론을 경험을 통해 검증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반박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포퍼의 참된 과학자상이다.

이러한 과학관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자유롭게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해 과학 이론을 생산하며, 일단 과학 이론이 생산되면 그 이론은 세계의 존재 방식에 의해 엄격한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그 이론은 폐기된다.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이론만이 살아남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은 끊임없이 성장한다. 과학자들의 사회는 열린 사회의 모델이며, 열린 사회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 모든 탐구에는 무지와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만 한다.

포퍼는 추측과 반박을 통해 과학은 성장한다는 지식 성장설을 옹호하였다. 지식은 성장하고 진보한다는 사실에 의해 다른 분야와 구별된다. 이중섭의 그림이 김홍도의 그림보다 진보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의 이론보다 진보한 이론이라고는 볼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러면 과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포퍼는 경험을 통한 반증가능성에 의해 과학과 비과학을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준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 기준을 사용하여 과학을 표방하고 있는 프로이트나 아들러의 이론, 마르크스의 이론을 비과학적인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계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관찰에 의해 반증될 수 없는 이론은 비과학적인 이론이 된다. 모든 인간의 행동을 열등감으로 설명하는 아들러의 심리 이론은 경험에 의해 반증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비과학적인 이론이 무의미한 이론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

에서 구획 기준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의미 기준과 구별된다.

이성의 한계 겸허히 받아들인 합리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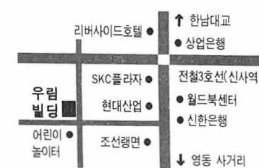
이러한 반귀납주의적인 포퍼의 과학관은 한 동안 매력적이었던 논리실증주의를 누르고 참다운 과학관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전개된 패러다임론이 나오면서 포퍼의 과학관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평생 동안 과학과 합리성을 옹호하였으며, 비판과 토론이 살아 숨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열린 대화의 옹호자로, 이성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폭력이 아닌 이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신뢰한 비판적 합리주의자로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포퍼는 「역사 법칙주의의 빈곤」(1957), 「추측과 논박」(1963), 「객관적 지식」(1972), 「끝없는 탐구」(1976), 「자아와 두뇌」(에클스와 공저)(1977), 「실재론과 과학의 목적」(1983), 「더 나은 세계를 찾아서」(1984, 영어본은 1992), 「성향의 세계」(1990) 등 많은 저술과 논문을 남겼으며, 「지식과 몸-마음의 문제」와 「프레임워크의 신화」라는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그의 저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년 이후에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포퍼는 1937년 뉴질랜드 캔트베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해서 1945년 런던의 경제학교(LSE)로 옮겼으며, 1969년에 은퇴하였다. 1950년대 초반에 그는 담배연기에 과민 반응을 보여 공공 장소를 피하고 대부분 집에서 연구하였다. 규칙적으로 친구들의 작은 모임에 초대받아 대화를 나누었으며, 1985년에 사별한 아내와는 1930년에 결혼하였다. 슬하에 자식은 없다.

포퍼 관련 국내번역서

•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이한구, 이명현 옮김, 민음사) • 「역사주의의 빈곤」(이석운 옮김, 지학사/박동환 옮김, 청아) • 「과학적 발견의 논리」(박우석 옮김, 고려원)
• 「칼 포퍼」(매기 지음, 이명현 옮김, 문학과 지성) •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신중섭 지음, 서광사) • 「칼 포퍼의 과학철학」(조용현 지음, 서광사) • 「역사주의와 역사철학」(이한구 지음, 문학과지성)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화 : 549-6883~5 팩스·모텔 : 515-1453